

## 성경해석의 이론과 실제

신 성 종  
(충신대 교수)

1. 해석학의 필요성
2. 성경해석에 필요한 것들
3. 해석의 원리
4. 성경의 맥락 Context 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
5. 맥락속에서 본 성경해석의 구체적인 실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후서 2 : 15)

목수가 집이나 가구를 만들 때에는 자를 나무에다 대고 정확히 재어서 자른다.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이 되려면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바로 목수가 자를 대어서 나무를 자르듯이 옳게 자른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일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재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는 자는 마음대로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 자는 바로 성경인 것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성경을 ‘자’라고 하여 캐논 (Canon) 이라 부른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의 편지이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고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적어도 2,000여년 전에 기록되었고 또,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환경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과는 간격이 있다. 이 간격을 좁혀주거나 없애주는 것이 바로 성경해석학이다. 물론 성경은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다 알수없는 신비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해석학만으로는 성경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인간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해석의 기술과 기도는 두개의 축과 같다. 이제 그러면 성경해석의 이론과 실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해석학의 필요성

혹자는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맹목적인 믿음을 원치 않으신다. 신앙에는 세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들음과 읽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둘째는 아는 것 만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는 그 깨달은 진리를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만 받으면 다 된것으로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풀치 아픈 작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요일 2 : 20, 27) 그렇지만 성경해석학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필요하다.

## (1) 소위 모순 설명을 위해서(창 22 : 1, 2. 약 1 : 13)

성경에는 모순이란 것이 없다. 그러나 모순 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창세기 22장 1, 2절과 야고보서 1장 13절이 그 한 예이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고보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들의 표현은 서로 모순처럼 보인다. 그리고 모순이 아니고 두개다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일구이언(一口二言) 하는 분으로 보이게 된다.

여기에서 해석학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양자를 모두 시험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Temptation)으로, 하나님의 것은 시련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시련(trial)은 교육적이다. 즉,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다.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trial, test이고, 야고보서의 것은 temptation이다. 이런 모순으로 보이는 귀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 (2) 단어의 문자적인 뜻 만으로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마 26 : 26)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체설(化体說)을 주장했다. 루터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빵의 주위에 예수님의 몸이 함께 공존(共存)한다고 생각하여 공존설을 주장했다. 칼빈은 화체도, 공존도 하나라 상징으로 보았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카톨릭과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으로, 이런 귀절의 해석때문에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사도신경의 보좌우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존귀하게 계신다고 하는 뜻이며 앉아있다는 것은 통치하는 것을 뜻하는 은유이다. 이렇게 때문에 성경해석학은 필요하다.

## (3)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히 13 : 8)

히브리서 13장 8절의 경우는 예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한다. 초림하기전의 예수님과, 초림시의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시고 재림하실때의 예수님은 동일한가? 비록 주님의 인격과 직분, 교회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은 변했다. 예수님은 초림시 시공간의 제약을 받던 그 몸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다. 이같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위해서 해석학은 필요하다.

## 2. 성경해석에 필요한 것들

## (1) 성령의 조명(롬 8 : 7, 시 119 : 18, 33~34)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과 안내가 필요하다.

## (2) 편견없는 마음(눅 8 : 15)

성경을 읽을때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에 가리워서 그 뜻을 알 수 없게 된다.

## (3) 겸손(마 11 : 25, 약 4 : 6)

학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야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 (4) 기도(약 1 : 5)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거룩한 목적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단지 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 3. 해석의 원리

## (1) 신약의 상호의존성, 계시의 점진성

신약과 구약은 서로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신약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구약은 신약이라는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연구해야 한다. 그렇고 구약만을, 혹은 신약만을 연구하면 구약을 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

이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식의 성경해석에 빠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 주실 때 구약에서 모형을 보이시고 신약에서 원형을 보여주셨다, 신약에서의 십자가가 원형이라면 구약의 출애굽사건은 모형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약이 신약보다 못하다는 것도 결코 아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야에 관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야에 대한 것이다. 구약의 십계명을 말할 때 그것이 신약의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율법 주의에 빠지게 되므로 이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잘 풀어 설명하고 있다.

### (2) 전체에서 부분을, 맥락에서 본문을

성경은 전체를 보고난 후 부분을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분만을 본다면 잘못된 해석에 빠지기 쉽다. 또 Context 속에서 text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오늘날의 Context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Context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와 성경이 기록되었던 Context를 보아야 한다.

### (3)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 당시의 슬로건이었던 '오직 성경'이다. 모든 것의 마지막 표준은 성경이다. 성경의 해석은 성경에서 찾아야 하며 전승이나 전통에서가 아니다.

### (4) 성경이 나를 해석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는 입장보다 성경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 하도록 해야 한다.

## 4. 성경의 맥락(Context)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

해석학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많다. 문학, 법학, 신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셰익스피어나 호머의 작품, 카프카의 작품과 같은 문학을 대할 때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는 지를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죄지는 사람에게 법을 적용할 때 바른 법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학에서의 해석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떤 분야에서 보다는

크다. 그래서 혹자는 신학을 해석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석학에서 가장 단순한 원리는 그 본문을 그 본문의 맥락속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맥락이라고 하는 Context는 문맥으로도 번역되고 있는데 그 뜻은 연구하고 있는 본문의 전후를 말한다.

콘(Con)이란 '함께'라는 뜻이다. 즉 본문(Text)와 함께 있는 문장이다. 콘텍스트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문장 혹은 한 절(Paragraph)을 뜻한다. 한글 성경에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로 그것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문장(Sentence)이란 대단히 모호하다. 그래서 문장은 맥락속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분명한 의도의 뜻을 알 수 없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에서는 그것이 더욱 두드러진다. 구약성경은 역사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시(詩)는 특수한 언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히브리시는 대구(對句)로 되어 있어서 한 문장의 뜻은 다른 대구의 맥락에 의존한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보여지는 일반적인 문제점은 그들이 성경구절을 하나씩 외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그 구절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을 암송하므로 오는 유익은 굉장히 큰 것이다. 암송을 통하여 오는 큰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전체를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무시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보기 쉽다. 예를 들면 이사야 58: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하는 구절은 매우 큰 은혜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 앞에 있는 9~10절의 문맥을 떠나서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즉, (1) 너희 중에서 명을 제해버리고, (2) 주린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될 때 인도하신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요한복음 9:3에 '이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세사람 다 죄가 없다는 말인가? 9장

3절만 보면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죄없는 사람은 없다고 선언한다. (롬 3 : 9~10, 23) 그러면 본문의 뜻은 무엇인가? 본문의 뜻을 바로 알려면 그 문장의 맥락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우리는 본문에서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그 부모가 죄가 있는가?' 라고 묻지않았다. 소경이 장님인 이유를 물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것이 아니라' 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죄가 소경이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라는 말씀일 뿐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오직성경'이란 원리를 제창하였다. 그 뜻은 모든 표준을 성경에 둔다는 뜻도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한다는 뜻이 있다.

스트레트(T. N. Sterrett)는 성경해석의 6 가지 원리를 제시 하였다.

- 1) 그 구절의 모든 가능한 의미들을 다 살펴보고 비교해 보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해석의 문제점들을 찾아보라.
- 2) 본문의 뜻을 맥락속에서 읽어보라. 대부분의 경우 그 본문의 앞이나 뒤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본문의 구절을 자세히 읽으라.
- 4)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라. 예를들면 고린도전서 10장14절~31절의 경우 반복되는 동의어를 주목해야 한다. '참여한다' '먹다', '마시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 5) 본문의 내용을 자신의 용어로 표현해 보라.
- 6)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이 안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러한 원리아래 성경의 맥락속에서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맥락속에서 본 성경해석의 구체적인 실례

그러면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 예를 들어 살펴보자. 고전 10 : 23에 '모든것이 가하나 모든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였다. 여기서 '모든' 이란 말은 제한없이 모두다를 말하는가? 그렇다면 살인, 간음, 우상숭배등도 합법적이란 말인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문맥을 읽어보자. 6절에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했고, 7절과 14절에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고 8절에 '간음하지 말자'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한없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다른 성경과 모순이 된다. 그러면 본문의 뜻은 무엇인가? 위에서 지적한대로 '먹다' '마시다'란 말이 참여란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23절은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19절과 28절을 비교할때 그 대답은 분명해 진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상제물 것은 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피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우상제물 같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말라는 뜻이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본문을 항상 그 맥락속에서 꼭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잠언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13 : 18~24절 같은 구절도 그 맥락속에서 해석해야 하느냐이다. 사실 성경에는 그 문맥 혹은 맥락을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구절이 많다. 또한 제자들 자신이 어떤 사건이나 사실 혹은 대화들을 생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연속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를 기억하자. 첫째는 눈에 띄는 연결이나 관계가 없다고 속단하지 말자. 좀 더 연구하게 될 때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억지로 연결시킬 경우 성경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잊지말것은 몇가지의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첫번째 원리인 맥락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리이다.

그러면 이제 이 원리속에서 예수의 비유를 해석해 보자.

가장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의 경우 우리는 그의 회개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맥락(비유학에서 그것을 삶의 정황이라고 부른다) 은 눅 15 : 1~2 절에 나온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을 원망한데 대해 변증한 것이 탕자의 비유이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에 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탕자가 비유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위 탕자의 비유는 크게 두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24절 앞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고 그 뒷 부분에서는 형의 잘못을 통하여 종교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데 있다. 이 처럼 본문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맥락속에서 해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다음은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마 11 : 16~19)를 예로 들어보자. 이 비유의 삶의 정황은 끝 부분에 나온다.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감각없는 현 시대에 대한 비판의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맥락속에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비유를 말씀한 근본 동기는 예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방한 것에 대해 답변한 변증이다. 당시 아이들은 길 거리에서 결혼식 놀이와 (17상) 장례식 놀이 (17하)를 곧 잘 했는데 이때 여기에 합세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남의 흉을 깨는 자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 저들을 비판한 것이다. 즉 바리새인들의 트집이 마치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 합세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비유의 초점은 '지혜는 그 행한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적용에 있다. 즉 지혜는 깨닫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이미 마지막이 온것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 성경공부지도자의 자질과 역할

하 용 조

(두란노서원 · 목사)

요즈음 미국의 성장하는교회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회마다 교인 양육과 함께 지도자 훈련을 세미나 형식으로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와 연구의 결과가 교회마다 자기들의 개성에 맞게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공부에 있어서 성경공부 지도자 역할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성경공부 교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 성경공부 지도자론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선택된 자에게 주는 성경의 말씀의 경고를 먼저 찾아 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2 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였다. 우리 지도자 들은 말을 안할 수가 없다. 어차피 말을 해야하고 말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 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